

도내 아파트 분양 품수 '도마위'

모델하우스, 설계도면과 다른 확장형으로 꾸며... 분양가 상승원인

도내에서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알뜰한 품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모델 하우스를 승인 설계도면과 달리 확장형으로 꾸며 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코니를 비롯해 주방과 거실의 경우 확장하지 않으면 제 구실을 못하게 보여 확장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분양가 상승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A 건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m² 당 700여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A 아파트 역시 모델하우스 내부를 살펴보면 아예 확장형으로 모델 하우스를 지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주방이나 일부 방에는 점선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기본형에 베란다 등을 없애고 넓게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부는 확장형임에도 아예 점선을 붙여 놓지 않은 곳도 있다. 소비자가 당초 설계도와 같은지 여부를 놓고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모델 하우스 관계자는 "전시시설을 최대한 예쁘게 꾸미는게 맞지 않느냐"면서 "그러려면 기본형 보다는 확장형으로 모델 하우스를 지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 인아한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회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음에

도 오히려 건설회사 모델하우스 입맛에 맞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법 38조의 3을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시 아파트 사업승인과 같이 설치 시공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는 m² 당 700~800만원대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확장형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며 "확장형으로 하게 되면 기존 분양가인 m² 당 700만원보다 600여만원이 추가 소요돼 m² 당 1,4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신광영기자



포도와 함께 8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6 포도데이 행사를 찾은 사람들이 포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로 9 회째를 맞은 포도데이는 포도를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는 의미로 농협과 한국포도 생산자협회가 2008년부터 포도송이를 담은 8월 8일을 전후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모현동 일대 하수관거 보강공사 실시

안전도 D등급에 정비 필요

안전도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익산시 모현동 일대 하수관거 보강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다.

모현동 일대의 하수관거는 노후로 인해 철근이 노출되는 등 파손이 심각한 상태다. 또 안전도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D등급을 받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지구는 철도가 횡단하는 구간이어서 만일 하수관거가 침하할 경우 철도노선 이탈사고 등의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강사업은 올해 9월에 착수해 내년 4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영기자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중소기업육성자금 400억원 확대 지원

군산조선소 물량감소로 타격 큰 사내·외 협력업체 91개사 먼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하반기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4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진원에 따르면 장기적 경기침체, 실물경기 악화 등에 기인한 정책자금 수요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외 협력업체 9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182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해당업체는 2년간 최대 2억원까지 2%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도 생략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응차규모는 100억원으로 연간대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할 계획

이다. 추석긴급자금은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별도로 지원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분화와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다.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책개발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ba.kr) 또는 전화(063-711-2021~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한류 K뷰티 중국내 '비상' 걸리나

정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팬미팅·행사 잇따라 취소

정부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내의 한류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해외수출의 절반 가량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K뷰티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사드논란 이후 한국인 상품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팬미팅 취소 등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2TV 수목드라마 '할부로 애뽕하게'의 주인공 수지와 김우빈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팬미팅을 열 예정이었지

만 현지 행사 주체인 유쿠로부터 연기 통보를 받았다. 유쿠 측은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우 유인나 역시 중국 후난위성TV의 28부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 2 : 달빛 아래의 교환'의 주인공 역에서 하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걸그룹 와썹, 보이그룹 스누퍼 등의 중국 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중국 당국은 한국을 상대로 상품비자·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일부 업체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상품비지는 관광 목적의 1회용 단수 비자와 달리 사업 등의 목적에 한해 6개월이나 1년 동안 유효한 비

자다.

중국 당국이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뷰티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25억8780만달러(약 2조9280억원)였고, 절반 이상이 중화권으로 수출됐다.

중국이 10억6237만 달러, 홍콩이 6억 4182만 달러로, 중국과 홍콩의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 점유율이 65.9%에 이르렀다. /뉴시스

수탁·위탁 거래 우수 업체 선정

전북지방중소기업청, 9월 9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2016 수탁·위탁 거래 우수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 이 있는 기업이다. 또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 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업체로서 표준약관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발전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시 신인도접수 우대,

신용평가기관(신보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R&D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계획은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협력 문화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기청 사업참여가 접부여 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곡물·식물성유지 하락 영향에 세계식량가격지수 6개월만 ↓

5개월 연속 상승하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하락했다. 곡물과 식물성 유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7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61.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곡물·식물성 유지류 가격 하락이 유제품·육류·설탕 가격 상승을 상쇄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의 경우 6월(156.9포인트)보다 5.6% 하락한 148.1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주요 재배 지역의 기상 여건이 양호해 옥수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유제품은 한 달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한 157.4포인트를 나타냈다. 국제 수입 수요 침체로 팜유 가격이 5개월 이래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 주 원인이다.

유제품은 6월(137.9포인트)보다 32% 상승한 142.3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강우량에 따라 오세아니아의 우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는 한 달 전보다 1.3% 상승한 159.9포인트다. 돼지고기 등 모든 육류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유럽 지역의 도축용 돼지 두수와 무게가 감소했고, 오세아니아 지역 양고기와 소고기 생산량도 줄었다. 중국의 수입량도 회복되는 추세다.

설탕은 1.0% 상승한 278.7포인트를 나타냈다. 설탕가격 상승은 브라질 레일화의 달러 대비 강세(6월 대비 7월 환율 4% 상승)가 반영된 결과다. /뉴시스

'올림픽 응원' 상품 매출 급증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스포츠 축제 올림픽을 맞아 응원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화질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TV' 매출은 직전달에 비해 61% 매출이 증가했다.

또 출출한 새벽시간 허기를 달래줄 과자, 간식 매출은 29%, 만두, 피자, 떡볶이, 튀김 등의 간편 가공식품은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응원 후 곧장 출근을 해야 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무알콜 음료', 아침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매출도 각각 52%, 44% 증가했다.

이에 11번가는 TV부터 각종 먹거리 등 관련 상품을 한데 모아 할인판매하는 응원 기획전을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는 '쇼핑크대포'를 열고 TV, 아식 카테고리 인기제품 40여종을 한데 모아 최대 34%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12일까지는 '뿌레쥬르'와 손잡고 '국가대표빵 100원' 행사를 실시한다. 쿠키를 풀면 양궁빵, 펜싱빵 등 재미있는 컨셉의 국가대표빵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